

코로나 물러가라! 반도체 다시 달린다... '깜짝 반등'

지난달 반도체 수출규모 반등
글로벌스마트폰 생산 정상화
데이터센터 중심 수요 급증세
변수 작용한 코로나 피해 미미
사업장 밀집접촉자 나왔지만
철저한 방비로 생산중단 막아



SK하이닉스 클린룸

/SK하이닉스 뉴스룸

대한민국 반도체 업계가 다시 달린다. 코로나19 확산에 잠시 주춤했지만, 오히려 여전히 저력을 확인하고 '초격차' 전략도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산업 협회는 1월 반도체 판매량이 전년비 0.3% 감소한 12억5500만달러였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년비 실적이나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2019년 1월 반도체 판매량은 2018년 1월보다 10% 이상 줄었다. 올해 1월에도 비수기 등 악영향이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예상을 넘는 실적에 성공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변수지만 예상보다는 피해가 적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국내에서 2월달 반도체 수출 규모가 15개월여만에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여파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오히려 데이터센

터를 중심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글로벌스마트폰 생산기지도 빠르게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초격차' 전략도 다시 시동을 걸었다. 삼성전자는 최근 DS부문 직속으로 데이터&IT (DIT) 센터를 설립했다. 반도체 공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 공장으로 구축하는 조직으로, 더 정밀한 반도체 생산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차세대 D램 개발과 투자도 지속 중이다. 3세대 10나노(1z) D램 라인을 확대함과 동시에, 1a나노 D램 개발도 순항 중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평택사업장에서 업계 최초로 16GB스마트폰용 D램 양산에 성공했다. 평택 사업장 설비 투자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는 전언이다.

시스템 반도체 1위 탈환 작전도 본격화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20을 통해 선보인 1억800만화소 카메라 이미지 센서(CIS)로 큰 호평을 받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업계 1위 소니에 타격이 예상되면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본격적으로 낭보가 날아들 기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까지 대만 TSMC와 미세 공정 경쟁을 벌여 5나노 양산

으로 어깨를 나란히 했고, 올 초 3나노 개발에 성공하면서 역전 발판을 마련했다. 이미 퀄컴의 5G 모뎀칩 수주를 함께 따냈으며, 올해로 TSMC와 계약이 끝나는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수주할 가능성도 감지된다.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를 바짝 뒤 따라가는 모습이다. 올 초 1z D램을 계획대로 양산할 예정, 삼성전자가 유일했던 고대역폭 D램인 HBM2E도 지난해 개발을 끝내고 올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위협도 일찌감치 제거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SK하이닉스 이천과 청주사업장에서도 밀접접촉자가 있었지만 생산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를 막아냈다. 일찌감치 방비 대책을 마련했던 덕분에 팍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전언. 팍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생산을 멈추지 않고 방역을 할 방법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발 묶인 수출길... 코트라, 화상상담 등 지원

화상 수출상담부스 5개→60개 확대
해외무역관 44개→88개 대폭 늘려
취소된 전시회 '온라인전시관' 대체
긴급 해외 현지 마케팅 대행 등 도와



코트라가 코로나19에 대해 화상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코트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수출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화상상담 지원 확대, 온라인 전시관 신설, 긴급 해외 현지 마케팅 대행 등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코트라(KOTRA) 본사와 지방지원단의 화상상담 부스는 5개에서 60개로 대폭 늘리고 화상상담 중점 해외 무역관은 44개에서 88개로 확대한다.

화상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코트라 본부와 13개 지방지원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코트라 무역관에서는 신청기업별 현지 시장성 평가를 거쳐 적합한 바이어를 발굴해 일대일 화상상담을 우선한다. 일대일 화상상담은 코트라의 사 이버무역상담실과 지방지원단 사무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무실·자택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통역은 무료로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취소된 국내외 전시회와 유망 품목 마케팅을 대체할 '온라인 전시관'도 신설한다.

이달 열릴 예정이었던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를 비롯해 최근 취소된 국내 전시회 8건, 해외 전시회 11건의 온라인 전시관을 우선 구축한다.

또 소비재, 의료바이오 등 유망품목별 온라인 전시관을 추가 개설하고, 전 세계 무역관을 통해 유력 바이어를 초청하여 제품을 홍보하면서 관심이 큰 바이어는 국내기업과의 온라인 화상상담을 추

진해 수출계약이 성사되도록 돕는다.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해외 현지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기업을 위해서는 해외무역관이 거래선 관리, 인허가 취득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긴급 해외마케팅 대행을 지원한다. 가입 소요 기간은 기존 1달 이상에서 즉시로 단축했고 참가비와 서비스 기간도 75만원과 3개월로 기존 사업의 4분의 1로 완화했다. 긴급 마케팅 대행이 필요한 국내기업은 코트라 본부 유망기업팀에 언제든지 신청하면 된다. /양성운 기자 ysw@

어려울수록 빛나는 항공사 '온정' 경영난에도 코로나19 지원 앞장

대한항공, 우한에 마스크 등 구호품
제주항공, 파트너 여행사에 소독제
티웨이, 달력 판매 수익금 전액 기부
이스타, 임직원 자발적 헌혈 봉사



대한항공이 중국 우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긴급 지원 물품을 항공기에 싣고 있다. /대한항공

항공업계가 심각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이웃들에게 손을 뻗고 있다.

최근 중국 우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계에 코로나19가 퍼지면서 국내 항공사들도 경영난에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중국 우한 지역 주민들부터 국내 대구·경북 지역, 영업 파트너인 여행사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전달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중국 우한 지역에 긴급 구호품을 지원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KF94 타입 마스크 4만장을 중국 홍십자회에 전달할 것이다. 중국 홍십자회는 한국 내 적십자사의 단체로, 대한항공이 전달한 마스크는 홍십자회 주관으로 우한 지역의 지정 병원으로 전달됐다.

중국 우한 지역뿐 아니라 국내에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구·경북 지역을 향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달력 판매 수익금 전액으로 대구·경북 지역 돕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국제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코로나19 피해지역 긴급생계지원 사업'에 달력 판매 수익금 전액을 전달했다. 또한 올해 9월 신규 취항 예정인 에어프레미아도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해 대구의료원에 손소독제 20만여 개와 KF94 마스크 1000장을 기증했다.

최근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며 국내 항공업계 '빅3'로 도약한 제주항공도 코

로나19 피해 지원에 나섰다. 현재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가 늘며 항공사뿐 아니라 여행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제주항공은 주요 영업 파트너인 17개 여행사를 찾아 1000만원 상당의 손소독제를 전달했다. 또한 제주항공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항공기 소독·기내 체온계 및 손소독제 비치 등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에 따른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헌혈 봉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헌혈 봉사 프로그램이 이뤄졌으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졌다. 이스타항공은 현장 접수 및 사전 신청을 통해 40여명의 임직원이 헌혈버스에 올랐다고 전했다.

한편 국적 항공사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노재팬·홍콩 시위 등으로 적자가 이어져 왔고,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치명적인 영향을 입힌 탓이다. 5일 기준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는 96개국으로 늘었으며 이에 따라 당분간 대부분 노선은 비운항 할 수밖에 없다. 국내 6개 저비용항공사는 정부의 조건없는 긴급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의료진 면역력 위해"... 코로나19 기부현장 '홍삼' 눈길

권익위·KGC인삼공사 등 후원

우도 크게 늘었다.

전국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 속에 코로나 극복을 염원하는 각계각층의 기부도 크게 늘고 있다. 기업과 연예인, 스포츠스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일반인들까지 기부행렬에 동참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는 보통 현금이나 마스크 및 방호복 등 현장에 필요한 물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최근 이색 기부로 홍삼을 후원하는 경

우도 크게 늘었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원들의 자율적 모금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지역 보건소 직원·의료진 등에 정관장 홍삼점에 브리타인 120박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KGC인삼공사 등 홍삼제품을 제조하는 여러 기업들도 의료진들을 위해 홍삼 기부에 동참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도 홍삼 물품 기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 감염이 확산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현장의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피로도 점점 가중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구지역에 기부한 홍삼.

되는 상황에서 홍삼 선물은 마스크만큼이나 현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

/김민지 기자 kmj@